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35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4월 27일 (음력 4월 3일) 월요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여수엑스포 조직위장 인선 감감…F1 지원법 발목…

지역민들 '딴죽 정부'에 화났다

광주·전남지역 대형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거나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해 온 균형발전 지원 약속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남의 최대 현안인 F1(포뮬러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의 경우, 여야의 우호적 입장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딴지걸기'가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F1 지원법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조직위원장 부재가 한 달이 돼가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아쿠아리움 건설 등 대형 민자 유치와 국도 17호선 확충 등 엑스포 성공을 위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에서는 조만간 조직위원장 선임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호남의 미래가 걸려있는 광역경제권 설정도 마찬가지. 여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북을 호남권에서 떼어 내 영남 2개, 호남 2개의 '5+3 광역경제권' 설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는 보란듯이 영남 2개, 호남 1개의 '5+2 광역경제권'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이번 주에 입법 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농수산식품부는 전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예정지에 대형 유리온실 건설을 강행, 지원보다는 오히려 대못을 박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J-프로젝트 관련,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 SOC의 핵심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완공' 사업도 물 건너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오송~광주 2014년, 광주~목포 2017년으로 확정, 기존 계획과 별다른 차이 없는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전남 대형 현안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는 또다시 '호남 홀대론'이 고개를 드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고위 공직자는 "정권 교체 이후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호남인맥 퇴진에 이어 지역 현안 사업마저 지지부진, 정부에 대한 지역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6일 광주시 광산구 가축위생 담당자가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독감(swine flu)' 예방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멕시코서 돼지독감 81명 사망

광주·전남 방역 강화

멕시코와 미국에서 돼지독감 사망자와 환자가 증가하는 등 돼지독감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상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5면〉

2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양돈장 내부의 환기 관리와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등의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광주시 광산구는 이날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예찰 및 방역활동을 벌였다.

시·도는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기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 방역체계와 연계해 돼지인플루엔자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 시·도민들에게 돼지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멕시코와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25일(현지시간)까지 돼지독감으로 8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차세대 태양전지 에너지 전환효율 세계 최고

광주과기원 이광희 교수팀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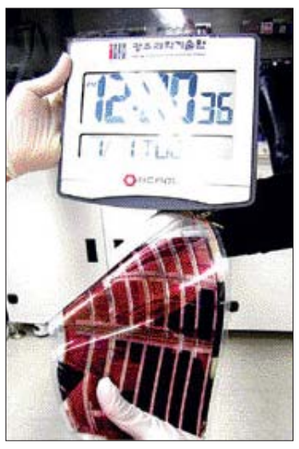
국제 학술지 게재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플라스틱 태양전지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이 입증됐다.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광희 교수팀은 '유기물을 이용한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단층구조로 제작, 에너지 전환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6.2%까지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연구실적은 국제 태양전지 검증기관인 국제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검증을 받았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27일자에 게재된다.

이 연구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연구실(GRL)사업 지원으로 이 교수 주도 하에 박성흠 박사와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앨런 히거 교수가 참여했다.



광주과기원 이광희 교수가 휘어지는 플라스틱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자시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유기물을 이용한 플라스틱 태양전지'는 광합성 원리를 태양전지에 적용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효율은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지만 휘거나 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비용이 저렴해 차세대 저가형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휘어지는 특성 때문에 방한 코트나 파라솔 등 응용 가능한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팀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생산 전류의 전압이 높은 플라스틱 신물질과 독자적 원천기술인 티타늄산화물을 합쳐 태양전지의 에너지 전환효율을 세계 최고인 6.2%까지 높였다.

이 태양전지는 특히 흡수효율이 가장 높은 녹색광 아래에서는 에너지 전환효율이 17%까지 높아져 상용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팀은 이에 앞서 2007년에는 단일구조 태양전지를 두 층으로 쌓은 적층형 태양전지를 개발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6.5%의 효율을 달성,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무현 前 대통령 30일 소환

서울대검청사서 조사…재보선 영향 주목

대검 중수부는 26일 오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4면〉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문 실장을 통해 "3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달라"고 통보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육로로 이동해야 한다며 시간조정을 요청해 '30일 오후 1시30분 출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3시40분께 서면질의서에 대해 직접 작성한 답변서 A4용지 16장을 이메일로 보내옴에 따라 소환 당일 신문할 수백여 개의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가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 ▲500만 달러는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정상적으로 받은 투자금이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은 전혀 몰랐다는 기존 입장대로 답변서를 적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밤늦게까지 조사하더라도 재소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한 이후 매일 불러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추궁했으며 소환 전까지는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